

삼천리, 해병 2사단과 자매결연

삼천리(대표이사 이영복)가 해병2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삼천리는 국내 최대의 도시가스 공급회사로 1월25일 김포에 위치한 해병 2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위문품 및 위문금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천리는 해병 2사단과 자매결연식을 가짐으로써 육군 28사단에 이어 2번째 자매결연을 맺게 됐으며 해병 2사단과 자매결연을 통해 강인한 해병정신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직원들의 정신력 강화 등을 위해 해병캠프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삼천리 이만득 회장은 해병대 출신으로 평소 기업경영에서도 강한 의지와 개척정신을 강조하는 등 해병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경영에 임하고 있다.

삼천리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자는 차원에서 문화, 복지, 장학사업, 농촌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해병 2사단과 상호 유대강화를 위해 발전적인 교류를 가짐으로써 자매결연을 더욱 돈독히 할 계획이다. <박경수 기자>

<화학저널 2006/01/27>